

22-04(통권 926호) 2022.04.15

# 경제주평

■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 목 차

## ■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Executive Summary .....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1
2. 대외 경제 여건 .....	2
3.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6
4. 시사점 .....	11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외 3인

## Executive Summary

### □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2021년 4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 호조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분기 1.2%를 기록해 3분기 0.3% 대비 0.9%p 확대되었다. 한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월 101.8p를 정점으로 2월 99.8p까지 8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민간 부문의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라 2022년 1~2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기대비 역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2022년 들어 부진한 모습이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방향을 예고해주는 선행지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증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 대외 경제 여건

2022년 세계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경기는 전반적인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고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의한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신흥국 경기는 주요국 경기 개선세 지속에 따르는 외수 경기 개선, 코로나19 진정세 확산, 경기 부양 기조 유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 경기 하방 우려가 상존할 것이다.

2022년 국제 유가는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들어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개선에 따르는 수요 확대 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산유국 공급 확대 제한 등으로 급등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 미국과 OPEC 등 산유국 간 갈등 지속, 생산설비 투자 부진 등으로 공급량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2년 국제 유가는 이들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배럴당 평균 100달러 선을 상회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는 강세가 지속되면서 엔화, 유로화,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 달러화는 경기 개선세 유지 속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 조기 실시와 같은 통화정책 전환 가속

등으로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유로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경기 개선세 둔화 우려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엔화는 국제수지 악화, 제로금리 등 기존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위안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위안화 국제화 지연 등으로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2022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나,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되는 전망을 유지한다. 주요국의 경기 흐름이 2022년에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기저효과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한다. 2022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약화되는 '상고하저'를 예상한다.

민간소비는 2022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방역수칙 완화 정책에 따른 대면서비스 소비 정상화, 해외여행 및 야외활동 재개 등이 민간소비를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소비심리 및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 제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은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2022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의 SOC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지속 등이 건설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과거 양호했던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이 주거용 건축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비주거용 건축 투자 개선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3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지연, 원자재가격 급등 등이 건설투자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설비투자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대내외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2022년 설비투자는 둔화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기저효과, 수출 증가폭 둔화를 감안하면 투자 요인이 크지 않고,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따라 친환경 관련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출은 2021년 수출이 높은 성장률과 함께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주요국의 2022년 중 엔데믹 가능성과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세계 수출시장의 수요 지속 등 요인은 수출경기

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전환,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수출 경기의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이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유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지속과 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서방국의 대러시아 제재 확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악화 가능성 또한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2년 실업률은 하락하고, 신규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0년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 완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키오스크, 자동화설비 등 무인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는 경향이 가속화된다면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 <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구 분	2020년 연간	2021년			2022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0.9	4.0	4.1	4.0	2.7	2.5	2.6
민간소비 (%)	-5.0	2.4	4.8	3.6	3.9	2.9	3.4
건설투자 (%)	-0.4	-1.5	-1.5	-1.5	2.5	3.0	2.8
설비투자 (%)	7.1	12.6	4.1	8.3	-0.8	4.6	1.8
수출증가율 (%)	-5.5	26.0	25.4	25.7	12.6	5.5	9.1
소비자물가 (%)	0.5	2.0	3.0	2.5	4.2	3.6	3.9
실업률 (%)	4.0	4.5	2.9	3.7	3.7	3.3	3.5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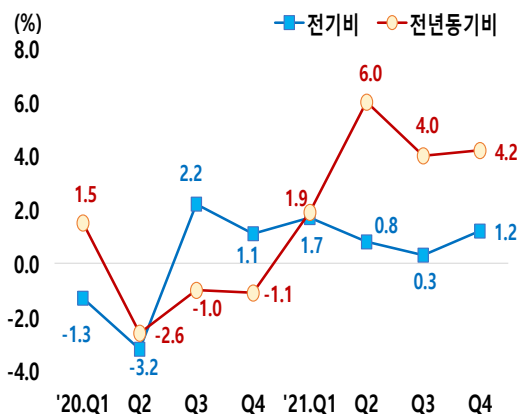
최근 국내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신정부 출범에 따르는 기대 효과와 더불어 재정정책의 집행 효율성 및 민생 경제 안정 효과 강화, 경제 외교 강화를 통한 수출 기반 확대,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동반된다면 2%대 후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재정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에너지 및 원자재 등의 수급 불안, 글로벌 공급망 경색 현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등 이른바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수출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외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미국 연준(Fed)의 통화긴축 가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의 둔화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가 국내 외환 및 금융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실물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넷째, 질서있는 엔데믹 전환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내수 경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이슈들이 경영 환경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기업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경기 회복 속 불확실성 확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 호조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선행지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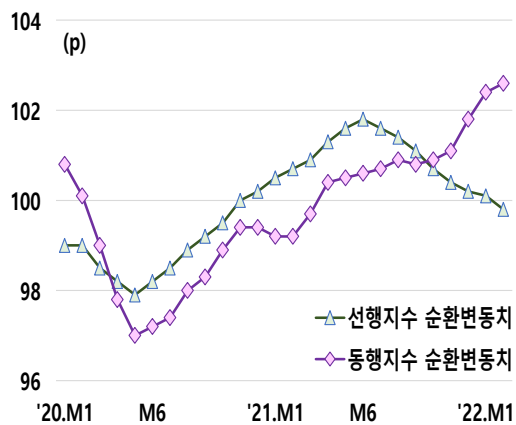
- 2021년 4분기에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호조가 경기 회복세를 견인
  - 2021년 4분기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호조로 3분기 0.3% 대비 0.9%p 상승한 1.2%를 기록
  -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4.2%로 3분기 4.0%에 비해 소폭이나마 상승
-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상승 중이나,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해 기준선 100p 이하로 떨어지는 등 경기 불확실성 확대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21년 9월 100.8p를 저점으로 5개월 연속 상승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21년 10월 100.9p, 11월 101.1p, 12월 101.8p '22년 1월 102.4p, 2월 102.6p
  - 단,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 101.8p를 정점으로 8개월 연속 하락, 2022년 2월 99.8p로 기준선 100p를 하회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21년 10월 100.7p, 11월 100.4p, 12월 100.2p '22년 1월 100.1p 2월 99.8p

<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자료 : 통계청.

## 2. 대외 경제 여건

### ① 세계 경기 및 교역

○ (현황)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간·지역 간 차별화 진행

- 선진국 경기 : 미국 경제는 코로나 영향력 약화, 경기부양책 통과 등에 따르는 소비와 투자 중심 회복세 지속. EU는 고물가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의 영향으로 경기 개선세 약화, 일본도 최근 내수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 둔화
- 신흥국 경기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등과 같은 리스크로 경기 회복세가 점차 둔화
- 세계 교역 : 세계 경기 개선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

<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

(%)

구분	2020년	2021년				연간
		1/4	2/4	3/4	4/4	
세계 경제성장률	-3.1	-	-	-	-	5.9
선진국	-4.5	-	-	-	-	5.0
미국	-3.4	6.3	6.7	2.3	7.0	5.6
유로지역	-6.4	-0.1	2.2	2.3	0.3	5.2
일본	-4.5	-0.5	0.6	-0.7	1.1	1.6
신흥개도국	-2.0	-	-	-	-	6.5
중국	2.3	18.3	7.9	4.9	4.0	8.1
인도	-7.3	2.5	20.3	8.5	5.4	9.0
브라질	-3.9	1.3	12.3	4.0	1.6	4.7
러시아	-2.7	-0.7	10.5	4.3	-	4.5
ASEAN-5	-3.4	-	-	-	-	3.1
세계 교역증가율	-8.2	-	-	-	-	9.3

자료 1) 연간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년 1월.

2) 분기 : 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로존 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 인도 중앙통계기구, 브라질 국립통계원 러시아 연방 주 통계청.

주 1) 분기 성장률 : 미국은 전기대비연율, 일본과 유로존은 전기대비, 나머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전년동기대비.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3) 세계 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 기준.



- (전망) 2022년 세계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할 우려 상존
  - 선진국 경기 : 전반적인 경기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고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의한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 고조
    - 미국 경제는 내수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고물가 지속과 빠른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 회복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유로지역의 경우, 고물가 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르는 원자재 수급난 등이 겹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
    - 일본 경제는 내외수 동반 회복세가 지속, 경기 개선 강도도 강해질 전망
  - 신흥국 경기 : 주요국 경기 개선세 지속에 따르는 외수 경기 개선, 코로나19 진정세 확산, 경기 부양 기조 유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 경기 하방 우려 상존
    -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 정책,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 부진 등 내수 부진에 의한 경기 하방 우려가 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서방국 경제제재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 세계 교역 : 미국 등 주요국 경기 개선세 둔화에 따라 세계 교역증가세도 전년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예상

< IMF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

(%)

구분	2021년(E)			2022년(P)		
	2021년 7월 전망	2021년 10월 전망	2022년 1월 전망	2021년 7월 전망	2021년 10월 전망	2022년 1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6.0	5.9	5.9	4.9	4.9	4.4
선진국	5.6	5.2	5.0	4.4	4.5	3.9
미국	7.0	6.0	5.6	4.9	5.2	4.0
유로지역	4.6	5.0	5.2	4.3	4.3	3.9
일본	2.8	2.4	1.6	3.0	3.2	3.3
신흥개도국	6.3	6.4	6.5	5.2	5.1	4.8
중국	8.1	8.0	8.1	5.7	5.6	4.8
인도	9.5	9.5	9.0	8.5	8.5	9.0
브라질	5.3	5.2	4.7	1.9	1.5	0.3
러시아	4.4	4.7	4.5	3.1	2.9	2.8
ASEAN-5	4.3	2.9	3.1	6.3	5.8	5.6
세계 교역증가율	9.7	9.7	9.3	7.0	6.7	6.0

자료 : IMF.

② 국제 유가

○ (현황) 2022년 들어 국제 유가는 수요 증가 속 공급 부족으로 급등

- 2022년 들어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개선에 따르는 수요 확대 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산유국 공급 확대 제한 등으로 급등
  - 세계 경기 개선으로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요 증가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
  - 반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와 OPEC 등 주요 산유국 증산 곤란 등과 같은 공급측 리스크로 국제 유가는 급등

○ (전망) 2022년 국제 유가는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 미국과 OPEC 등 산유국 간 갈등 지속, 생산설비 투자 부진 등으로 공급량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2년 국제 유가는 이들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배럴당 평균 100달러 선을 상회할 수도 있음

< WTI 및 Dubai 유가 추이 및 전망 >

(달러/배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WTI	39.34	62.22	73.81	<b>68.11</b>	101.95	103.99	<b>102.97</b>
Dubai	42.29	63.65	75.00	<b>69.41</b>	96.24	-	-
Brent	43.21	65.2	76.4	<b>70.95</b>	105.46	107.94	<b>106.72</b>

자료 : 실적치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전망치는 2022년 3~4월 주요 IB 전망치 단순평균값으로 Bloomberg 참조

주 : Dubai 2022년 상반기는 1/4분기 실적치.

③ 주요국 환율

○ (현황) 달러화 강세 전환, 기타 통화 약세 지속

- 달러화 : 기준금리 인상 등 연준(Fed)의 통화정책 전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리스크 확대에 따르는 안전자산 선호현상 확대 등으로 강세 전환
- 유로화 : 경기 회복 지속 기대 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등에 따르는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약세 전환
- 엔화 : 경상수지 악화, 통화완화 지속 등으로 약세 전환
- 위안화 :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등으로 약세 전환

○ (전망) 2022년에는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타 통화는 약세 전망

- 달러화 : 경기 개선세 유지 속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 조기 실시와 같은 통화정책 전환 가속 뿐 아니라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수요 확대로 강세 유지
- 유로화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경기 개선세 둔화 우려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이 높아 약세 전망
- 엔화 : 국제수지 악화, 제로금리 등 기존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약세 예상
- 위안화 :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위안화 국제화 지연 등으로 약세 지속

<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환율 전망 >

구분	유로/달러(E)			엔/달러(E)			위안/달러(E)		
	'22년 1분기	'22년 2분기	'22년 4분기	'22년 1분기	'22년 2분기	'22년 4분기	'22년 1분기	'22년 2분기	'22년 4분기
평균	1.123	1.104	1.127	116.4	118.6	117.4	6.347	6.386	6.428
최고	1.146	1.160	1.200	124.0	125.0	127.0	6.383	6.600	6.710
최저	1.086	1.070	1.050	113.7	112.0	107.0	6.309	6.250	6.150

자료 : Bloomberg.

주 : 2022년 1분기는 1~3월 평균 자료.

### 3.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 2022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나,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되는 전망을 유지

- 경제성장률 : 성장세 약화

-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흐름이 2022년에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기저효과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함
- 성장률로 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약화되는 '상고하저'가 예상됨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0.9	4.0	4.1	4.0	2.7	2.5	2.6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소비 : 증가율 소폭 둔화

- 방역수칙 완화 정책에 따른 대면서비스 소비 정상화, 해외여행 및 야외활동 재개 등이 민간소비를 견인할 전망
- 또한 소비심리 및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 제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은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22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3.9%, 하반기 2.9%, 연간 3.4%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5.0	2.4	4.8	3.6	3.9	2.9	3.4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건설투자 : 증가세 전환

- 정부의 SOC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 지속과 공공주택 공급 계획 등에 힘입어 2022년 건설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또한, 2020~2021년 양호했던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이 주거용 건축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비주거용 건축 투자 개선세도 이어질 전망
- 다만, 3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지연, 원자재가격 급등 등이 건설투자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2022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2.5%, 하반기 3.0%, 연간 2.8%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0.4	-1.5	-1.5	-1.5	2.5	3.0	2.8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 : 증가폭 둔화

- 대내외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설비투자는 둔화추세가 이어질 전망
- 기저효과, 수출 증가폭 둔화 등으로 산업계 투자 요인이 크지 않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전략은 보수적 성향이 강해질 전망
- 다만,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따라서 친환경 관련 설비투자는 다소 늘어날 전망
- 2022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0.8%, 하반기 4.6%, 연간 1.8%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7.1	12.6	4.1	8.3	-0.8	4.6	1.8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수출입 : 증가세 둔화

- 국내 수출은 2021년 수출이 25.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22년 중 글로벌 주요국의 엔데믹 가능성과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세계 수출시장의 수요 지속 등은 수출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전환, 1위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수출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수입은 원유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지속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2022년 무역수지는 상반기 12억 달러, 하반기 166억 달러, 연간 178억 달러 전망

- 경상수지 : 흑자 규모 축소

- 2022년 경상수지는 수입의 수출 증가세 상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규모 축소, 연내 해외여행 정상화 가능성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2021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253억 달러, 하반기 337억 달러, 연간 590억 달러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대외거래 전망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759	418	465	883	253	337	590
무역수지(억 달러)	448	173	119	292	12	166	178
수출증가율(%)	-5.5	26.0	25.4	25.7	12.6	5.5	9.1
수입증가율(%)	-7.1	24.3	38.5	31.5	19.0	4.3	11.7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물가 : 높은 상승세 지속

-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이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원유, 가스 및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지속과 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은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서방국의 대러시아 제재 확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정책 등이 글로벌 공급망 재악화 가능성을 높여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4.2%, 하반기 3.6%, 연간 3.9%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5	2.0	3.0	2.5	4.2	3.6	3.9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 : 실업률 하락

-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 완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또한 키오스크, 자동화설비 등 무인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는 경향이 가속화된다면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
- 2022년 실업률은 상반기 3.7%, 하반기 3.3%, 연간 3.5%, 신규 취업자수는 상반기 58만 명, 하반기 10만 명, 연간 34만 명으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고용 지표 전망>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4.0	4.5	2.9	3.7	3.7	3.3	3.5
취업자수 증감(만명)	-22	12	62	37	58	10	34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lt;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표 (2022.4) &gt;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0.9	4.0	4.1	4.0	2.7	2.5	2.6
	민간소비 (%)	-5.0	2.4	4.8	3.6	3.9	2.9	3.4
	건설투자 (%)	-0.4	-1.5	-1.5	-1.5	2.5	3.0	2.8
	설비투자 (%)	7.1	12.6	4.1	8.3	-0.8	4.6	1.8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759	418	465	883	253	337	590
	무역수지 (억 달러)	448	173	119	292	12	166	178
	수출증가율 (%)	-5.5	26.0	25.4	25.7	12.6	5.5	9.1
	수입증가율 (%)	-7.1	24.3	38.5	31.5	19.0	4.3	11.7
소비자물가상승률 (%)		0.5	2.0	3.0	2.5	4.2	3.6	3.9
실업률 (%)		4.0	4.5	2.9	3.7	3.7	3.3	3.5
취업자수 증감(만 명)		-22	12	62	37	58	10	34



#### 4. 시사점

○ 최근 국내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신정부 출범에 따르는 기대 효과와 더불어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성 및 민생경제 안정 효과 강화, 경제 외교 강화를 통한 수출 기반 확대,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동반된다면 2%대 후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한편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방향 전환, 중국 경제 둔화 등과 같은 리스크에 노출
- 대내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 및 이에 따르는 금융과 실물 부문의 불안정성 유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편 수출 증가세 둔화, 가계 체감 경기 악화, 신정부 출범에 따르는 정책 대응 시차 발생 가능성 등과 같은 리스크가 상존

첫째,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재정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경기 둔화 대응과 지속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통화와 재정정책의 동조(coupling)가 바람직하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은 탈동조화(decoupling)가 불가피한 상황
  -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Fed)의 통화긴축 가속에 따르는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금융 불균형 현상 심화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곤란
- 재정정책의 집행 효율성 강화와 민생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르는 기대효과가 경기에 반영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둘째, 에너지 및 원자재 등의 수급 불안, 글로벌 공급망 경색 현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등 이른바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수출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외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 국내 주요 수출 상품의 생산에 꼭 필요하거나, 민생 등 안전보장과 관련된 핵심 소재 등 자원의 확보는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와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
- 글로벌 경기 둔화는 물론 에너지·자원 가격 급등, 원화 약세,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수출 기반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

셋째, 미국 연준(Fed)의 통화긴축 가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의 둔화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가 국내 외환 및 금융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실물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 글로벌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사전적이고 지속적인 미세조정 및 안정화 조치 시행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함

넷째, 질서있는 엔데믹 전환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내수 경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엔데믹 로드맵 제시 및 실천을 통해 민간경제주체들의 혼란을 예방함으로써 소비와 생산 등 국내 실물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다섯째, 국내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이슈들이 경영 환경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기업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핵심 원부자재의 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기업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이를 적극 보완해야 할 것임
- 단기적인 비용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혁신, 생산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유사 리스크 재발 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오 준 범 연 구 위 원 (2072-6247, jboh19@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